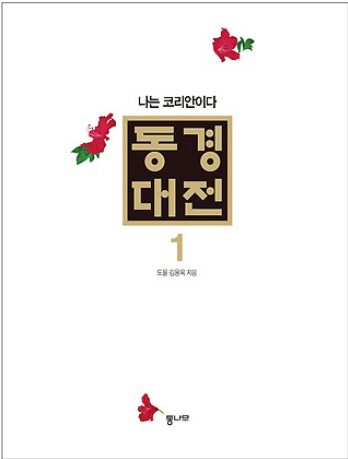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⑧ 김용옥의 『동경대전』



최제우(좌)의 사상은 최시형(우)에 의해 『동경대전』이라는 경전으로 출간됐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김용옥의 『동경대전』

또한 주체와 객체, 인식과 실천, 정신과 육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인간과 신이 분리되는 서구적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조화이고 화합의 일원론적 사고를 가진 사유의 체계는 우리만의 특수성이자 보편성으로 승화되어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도올 선생은 『동경대전』은 그것을 증명해낸 우리의 바이블이라고 역설한다.

정치사상을 전공하는 나는 그동안 서구 중심의 사상과 이론에 매몰되었다가 어느 순간 한국인이라는 존재론적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나의 학문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만난 것이 동학이다. 동학은 그대로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특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 사상이었다. 『동경대전』은 그러한 나의 인식을 일 깨우쳐 준 첫 교재였다.

동학은 1894년 갑오년에 동학혁명을 일으켰고 그 후손들은 1919년에는 3.1운동을 주도하였고 이후에는 항일운동과 통일운동에 나섰다. 비록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묵묵히 그 좌절을 넘어서 나아갔다. 지금도 우리는 혁명이 아닌 개혁 된 세상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민족의 눈물이었다. 동학은 후천개벽의 세상을 꿈꾼다. 개혁 된 세상은 자기의 마음만을 위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다른 마음을 이겨내고 한 몸이 되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새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위심이 아닌 동귀일체의 세상은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물질만능의 시대에 인간중심의 생명사상으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환경사상으로, 차별과 배제에서 동의와 함께의 사회로,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조화 그리고 분단극복의 통일이념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다. 그것이 동학이 꿈꾸는 세상이고 『동경대전』은 그 첫발자국이다.

동학이 꿈꾸는 세상, 사람이 곧 하늘



임형진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19세기 중반 경주에서 영남의 퇴계학을 정통으로 계승한 집안의 서자로 태어난 수운 최제우는 어린 시절부터 신분적 한계를 절감했다. 아무리 공부를 하여도 과거를 볼 수 없기에 쓸모없는 지식인이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주유천하 하는 것뿐이었다. 수운이 방랑생활을 하면서 목격한 것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백성들, 그리고 서양 세력에 무참히 무너지는 중국의 모습이었다. 비운의 지식인 수운 최제우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해 보고자 다시 공부하고 수련하기를 여러 해 드

어 1860년 동학을 창도하였다. 동학은 성리학도 아니고 서학도 아닌 말 그대로 동방(우리나라) 땅의 학문이라는 뜻이다. 동학은 안과 밖의 위기 국면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개혁 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함을 역설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자 철학이고 정신이었다. 수운은 차별적인 신분제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하늘을 모시고(시천주)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결국 좌도난정(진리가 아닌 것으로 정치를 어지럽게 한다)의 죄목으로 처형되고 말았다. 19세기의 순수한 우리 학문으로 등장한 동학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최고의 정치이론서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도통을 전수받은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노력으로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승될 수 있었다. 그는 36년이라는 최장기 도마리꾼(관의 체포령을 피해 숨어 다니는 사람)으로 전국을 다니며 동학을 전파하였다. 보파리 하나 들고 다녔다고 해서 ‘최보파리’라고 불렸던 해월은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백성은 평등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자각시켰고 나아가 만천하의 모든 것에는 생명이 담겨있다는 물물천 사사천의 이념으로 동학을 더욱 구체화했다. 한편 해월은 스승이 남긴 진리를 『동경대전』이라는 동학의 경전으로 출간하였다. 강원도 깊은 산골인 인제 감둔리에서 목학자관으로 인쇄한 『동경대전』은 구한말 한국사상과 정신문화에 일대 충격이었다. 도대체 『동경대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당시의 민중들에 선풍적인 바람이 일어 동학에 입도하게 하였는가?

한국 사상계의 엔터테이너인 도올 김용옥 교수가 십수 년을 걸쳐서 그것을 완벽해 냈다. 문제적 학자인 도올 선생에 대해 호불호가 있지만, 그가 동서양의 학문세계를 넘나드는 이 시대 최고의 사상가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도올 선생은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동학은 눈물이라고. 동학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근현대사의 민중의 눈물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이 민중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할 때 동학은 창도 당시부터 세월호까지 모두가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의 집대성이다. 그래서 도올 선생은 1, 2권의 부제로 ‘나는 코리안이다’와 ‘우리가 하느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붙였다. 우리는 인내천(人乃天)이라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동학을 탄생시킨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이다.